

오모리 구마가이 가문 주택

구마가이 가문은 수세기 동안 오모리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큰 가문이었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1867년까지 일본 전국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을 지배 하에 두었던 1600년대 초기부터 그 권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초기에는 광산업으로 부를 쌓았지만 이후에는 지역의 중앙 정부인 부교쇼(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관청)의 재정이나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 넓은 분야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구마가이 가문은 적어도 1718년부터 은의 무게를 재고 순도를 측정하여 질 낮은 제품이 발견되면 채굴업자에게 벌금을 징수하는 ‘가케야’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임무는 막부의 조세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마가이 가문은 임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마가이 가문의 당주는 오모리 지구를 관할하고 마치부교(부교쇼에서 집무하는 장관급 관리)와 주민들 사이를 중개하는 마치도시요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관리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구마가이 가문의 저택은 오모리 마을의 대부분이 화재로 소실된 이듬해인 1801년에 재건된 2층짜리 가옥이었습니다. 저택은 20세기 말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다가 마지막 창고가 완공된 1868년 당시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저택은 이와미 은광이 번영했던 시절 무사 가문의 생활상을 현재에 전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던 화려한 방을 포함해 대부분의 방이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